



남원소방서, 폭염 안전지킴이 활동 본격 시작

남원소방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 안전지킴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중심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추진되며, 총 35개 대 71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해 지역 곳곳을 누비며 밀착형 안전 관리를 펼칠 예정이다.

의용소방대원들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예방순찰, 찾아가는 안전교육,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 구체적인 예방 활동과 순찰 중 운영질환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 1차 처치를 실시하고, 119 구급대와 신속하게 연계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산림조합, 임업용 기계톱 무상점검 행사

임실군산림조합(조합장 정희석)은 지난 5일 산림경영지도 사업의 일환으로 임실군민과 조합원을 위한 임업용기계톱 무상점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합원 및 군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업기계장비 전문회사에서 전문 엔지니어들과 농기계 전문 수리업체 기술자들이 손을 모아 무상 점검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장비의 관리 요령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병행했다.

3,100여명의 조합원과 2,100여명의 준조합원이 함께하고 있는 임실군산림조합은 전국 220만 산주와 임업인의 대변인으로서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정읍시, 장애인 초청 무장애 영화 상영회 개최

정읍시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 5일 다목적실에서 관내 장애인 45명을 초청해 시각과 청각의 장벽을 낮춘 무장애(배리어프리) 영화 '라리랜드' 상영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제1기 장애인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치러졌다. 평소 제약이 많았던 이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주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상영한 '라리랜드' 무장애 판은 음성과 한글 자막을 더해 누구나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번 상영회 외에도 보건 교육, 구강 관리, 원예와 공예 활동, 자가 운동법 교육 등 다채로운 장애인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약계층의 건강 생활 실천을 돕고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AI 로봇·드론 교육' 첫 발

전주시, 관내 4개 초등학교 대상, 16일까지 AI 로봇 및 드론 융합 교육 시범 운영

전주시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AI 로봇 및 드론 융합 교육을 나선다.

시는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에서 전주시역 4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84명을 대상으로 'AI 로봇·드론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로봇과 드론을 직접 제어해 보며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구체적으로 교육 첫날 전주서천초등학교(8일)를 시작으로 △전주남초등학교(9일) △전주중앙초등학교(15일) △전주민성초등학교(16일) 등 총 4개 학교가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대상 학교를 선정했으며,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한 차량 운행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총 120분 동안 이론과 체험 과정으로 나누어 알차게 진행된다. 참여한 학생들은 먼저 30분간 진행되는 이론 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의 정의와 구조, 작동 원리를 배우고, 미래 세대가 갖춰야 할 AI 윤리와 규칙, 오류에 대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이어지는 90분간의 체험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2개 반으로 나뉘어 로보마스터와 텔로 등 최신 교보재를 활용하며, 블록 코딩을 기반으로 한 로봇·드론 미션을 직접 수행하는 실습 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시범 운영은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덕진구 혁신로 617)'의 공간을 다각도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이론 교육이 진행되는 교육장을 비롯해, 1층 로비 AI 로봇 미션, 2층 경기장 AI 드론 미션 체험이 일체적으로 펼쳐진다.

이번 교육은 전주시가 총괄을 맡았으며, 로봇 기반 미래항공 모빌리티 AI 진단 전문 기업인 (주)위플로가 교육 커리큘럼 구성과 전문 강사(연구원) 배치, 장비 제공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교육은 AI와 로봇 기술을 아이들이 직접 코딩하고 구동해보며 미래 기술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를 활성화하고, 전주의 아이들이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이날 행사에서는 영경귀 요리 경연 대회, 영경귀 떡 만들기 체험,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악 공연은 축제의 흥을 더하며 전통문화의 매력을 선보였다.

영경귀 요리 경연 대회는 총 10개 팀이 참가해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영경귀 초계백숙, 수육, 식혜 등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영경귀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심사 결과, 영경귀 초계 백숙을 선보인 논산시 연정삼 씨의 1명이 정읍시장을 수상하며 영경귀의 실용적 가치를 입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0주년 '2026년 정읍 영경귀 텃밭문화축제' 성료

들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경귀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거듭났다.

정읍시 고택문화체육관에서 지난 5일 열린 2026 영경귀 텃밭문화축제가 시민과 관광객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사)수향자연식생활문화원(대표 김현희)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10주년을 맞아 영경귀가 가진 건강 먹거리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주민이 함께 만들어진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경귀 요리 경연 대회, 영경귀 떡 만들기 체험,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악 공연은 축제의 흥을 더하며 전통문화의 매력을 선보였다.

영경귀 요리 경연 대회는 총 10개 팀이 참가해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영경귀 초계백숙, 수육, 식혜 등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영경귀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심사 결과, 영경귀 초계 백숙을 선보인 논산시 연정삼 씨의 1명이 정읍시장을 수상하며 영경귀의 실용적 가치를 입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계화면지시협,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부안 계화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8일 관내 주거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우리 이웃의 집은 아늑한가'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저소득층 가구로, 오랜 기간 방치된 각종 쓰레기 등이 쌓여 집 안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여 대상자 건강이 우려되어 아들을 설득해, 자체 지원을 통해 도배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책 조정기구 등을 운영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아동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도시, 아동과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아동 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폭염안전지킴이 활동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운영질환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최근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을 만나 의용소방대 폭염안전지킴이 운영 및 무더위 쉼터 이송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간담회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폭염 취약계층 발굴 및 보호체계 강화 △의용소방대 폭염안전지킴이 활동 운영방안 △운영질환 의심자 발생 시 의용소방대 다기능순찰차 활용 신속한 무더위쉼터 이송지원 △폭염 특보 발효 시 기관별 역할 및 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보조 활동과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읍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